



평화를 위한 원자력*

Dwight D. Eisenhower



존 경하는 의장님(인도의 비제이 락시미 판디트 여사), 그리고 총회 회원 여러분. 본 총회에서 연설을 해 달라는 하마숄드 UN 사무총장의 초청장을 버뮤다에서 받았는데, 그때 나는 영국과 프랑스의 수상 및 외무 장관들과 「세계를 괴롭히는 문제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

련의 회담을 막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버뮤다 회담 기간 중 내내 나의 마음은 내 앞에 놓인 큰 영광 때문에 계속 설레었는데, 오늘 이처럼 UN 총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UN과 같은 단일 기구에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음울했던 근래 수 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토의와 결정들 덕분에 이들 희망 중 일부는 이미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커다란 시험과 실행해야 할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며 나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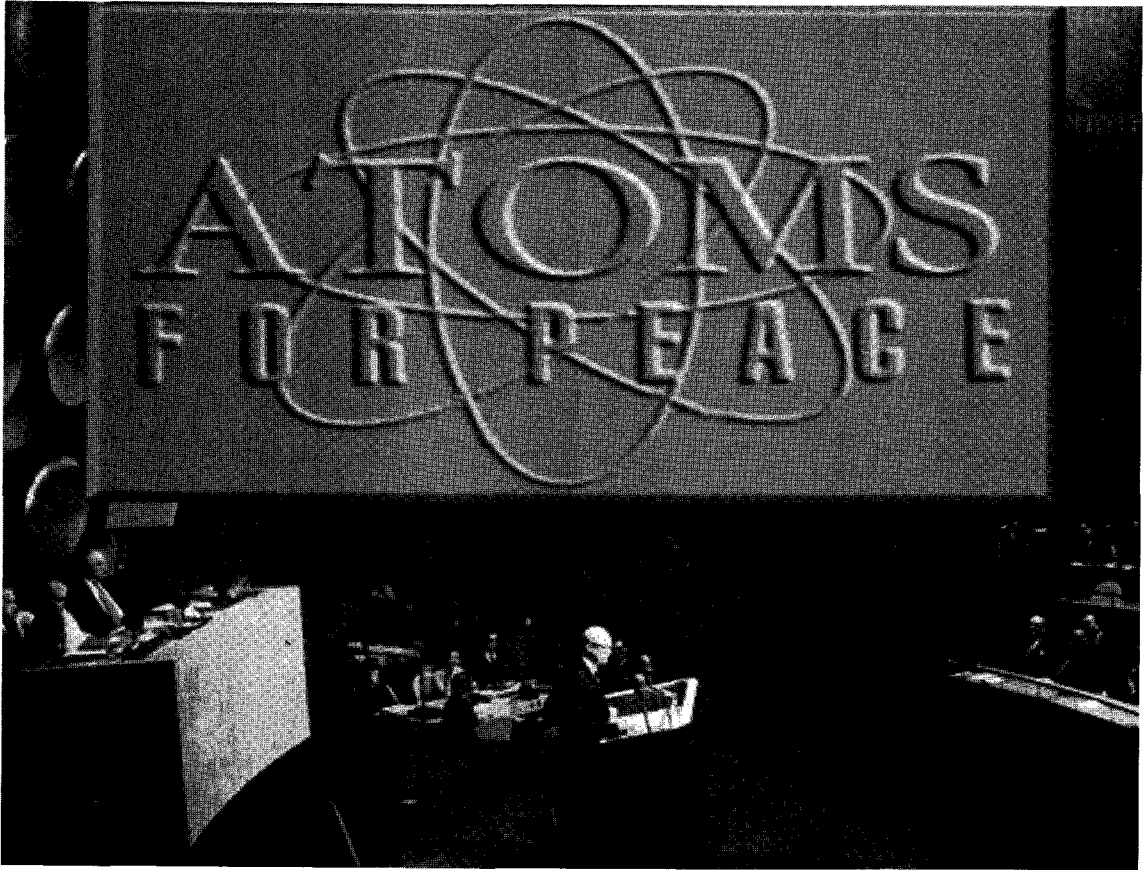
통령 재직 기간 중에 미국 정부는 이 기구를 확고하게 지지할 것임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UN을 지지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는 영원한 평화를,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는 행복과 복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와 용기 그리고 신념을 이 기구에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버뮤다 회담 내용을 미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름다운 섬에서 우리들은 UN 현장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과 동일한 만국의 평화와 인류의 존엄성에 관한 위대한 개념을 찾아내려고 숙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 본고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12월 8일 UN총회에서 연설한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연설문 전문으로, 제19회 한국원자력학회 연차대회의 주제인 「복지 사회를 위한 원자력-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 비전 선언, 제2 반세계에 들어서면서」에 맞춰 게재한다.

* 번역·감수 : 서중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사무총장(jssuh@kaif.or.kr)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단지 진부한 상투어만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이 자리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미국 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는 나의 동료들이 평소에 마음과 가슴에 품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원래 내가 미국 국민들에게 말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는 미국 국민들이 나의 깊은 신념, 즉 만일 세상에 위협이 존재하

면 그것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위험이 되며, 똑같이 만일 희망이 한 국가의 마음에 존재하면 그 희망은 다른 모든 국가들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긴장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한다면 UN 총회의 회원들이 가장 적절한 청중이 될 것입니다.

원자력 시대의 핵무기

오늘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언어이며, 또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직업 군인으로서 보낸 내가 사용하기를 꺼려해왔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언어는 핵전쟁이라는 언어입니다.

원자력 시대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원자력 개발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 되어 왔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평화를 제대로 찾고자 한다면 이들은 현재 어떠한 중요한 사실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자력과 그 위험에 대한 나의 압송은 필연적으로 미국 측 입장에서 나온 것인데, 왜냐하면 이들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총회 여러분에게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 주제는 어떤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7월 16일에 세계 최초로 원자탄을 터트린 이후, 미국은 지금까지 42회의 원자탄 시험 폭발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원자폭탄의 성능은 원자력 시대가 시작했을 때에 비해 25배 이상 강력해졌고 수소폭탄은 백만톤 이상의 TNT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핵무기 재고는, 물론 매일 증가하고 있지만, 2차 세계 대전 중 비행기와 대포에서 발사된 모든 폭탄과 포탄에 맞먹는 폭약의 수 배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단일 비행 편대는 해상 또는 육상 기지에서 발진하여 비행 편대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목표물을 세계 2차 대전 중 영국

에 떨어진 모든 폭탄을 합친 화력을 상회하는 파괴력으로 가격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규모와 다양성에 있어서 놀랄만하게 개발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모두가 무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만이 원자력의 무서운 비밀과 무시무시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의 친구이며 우방인 영국과 캐나다가 그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양 국가의 천재들은 미국이 원자력을 발견하고 원자폭탄을 설계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소련도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소련은 최근 수 년 동안 원자폭탄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소련은 이 기간 중에 일련의 핵 장치들을 폭발시켰는데, 이 중 최소한 하나의 폭발은 열핵반응(수소폭탄)이었습니다.

미국이 한때는 원자력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그 독점은 수 년 전에 종식되었습니다. 미국은 일찍 시작한 덕분에 수적으로 크게 우세하다는 이점은 축적하였지만 오늘날 원자력의 현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지식이 지금은 수 개 국가에 의해서만 소유되고 있지만 중

국에는 다른 국가들, 아마도 모든 국가들에 의해서 공유될 것이며, 둘째, 원자폭탄의 수적인 우세와 이에 따른 강력한 보복 능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기습 공격으로 인한 물질과 인명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어렵듯이 알고 있는 서방 세계는 자연스럽게 조기경보 및 방어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속화 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무기와 방어 체계를 구축하면 그 국가의 도시와 시민들은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 받게 된다고 사람들이 기대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서운 원자폭탄의 산술은 이처럼 쉬운 해결 방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대국이 아무리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공격을 하는 국가가 기습 공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대 국가의 정해진 목표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원자폭탄 공격이 미국에 가해진다면 미국의 반응은 신속하고 단호할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격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공격 국가의 영토를 폐허화 시킬 수 있는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

겠지만 이것은 미국의 진실한 목적과 희망에 위배되는 표현입니다.

평화의 추구

두 원자력 거인들이 애초부터 무서움에 떨고 있는 세계를 사이에 두고 서로 상대방을 악의에 찬 시선으로 무한정 응시하고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문명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자손 대대로 전승되어온 인류의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의 소멸- 그리고 야만에서 탈피하여 고상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상태로 도약하려는 예로부터의 투쟁을 다시 시작하려는 인간에 대한 비난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분별 있는 인종이라면 그러한 황폐 속에서 승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느 누가 역사에 의해 그러한 인간 비하와 파괴에 그의 이름이 연루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때때로 역사의 페이지들에 '위대한 파괴자'의 얼굴이 기록되기도 합니다만 역사책은 인류의 끊임없는 평화 추구하고 하늘이 내린 건설 능력을 보여 줍니다.

미국은 역사책의 격리된 몇 페이지가 아니고 역사책 속에서 확인되어야 할 원자력을 원합니다. 우리 나라는 파괴적이 아니고 건설적이길 원하며 다른 나라들과 협정을 원하지 전쟁

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자유 속에서 살기를 원하며 타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목적은 우리가 공포의 어두운 방에서 나와 빛을 향해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인간의 마음, 희망, 그리고 영혼이 평화와 행복 그리고 복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분단된 세계에서는 하나의 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세계가 구조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되돌아보고서는 서로 신뢰하는 평화스러운 환경이 되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조치를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 수 개월간 이들 조치 중 몇 개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회담을 기피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소

련에 대하여 분단 독일 문제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나라가 한국 문제에 관한 협의도 요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우리는 소련으로부터 4개국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과거와는 달리 그 통고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버뮤다 공동 성명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영국·프랑스는 신속히 소련과 회담을 갖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대를 가지고 성실하게 이 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담에서 평화를 향한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련에 대하여 소련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양도하도록 지금까지 제안 또는 제의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결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인은 우리와 다정스럽게 어울리거나 서로 유익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적이라고 우리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다가오는



회답이 동·서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섞이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동독·오스트리아, 그리고 동구 유럽에는 불만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련 인민들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지 않는 자유 동구 유럽 국가들의 화목한 패밀리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시아가 혼동과 분쟁, 그리고 불행을 넘어서 아시아인들이 자신들의 천연 자원을 개발하고 더욱 많은 몫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

위에서 언급된 것들은 근거 없는 말이거나 피상적인 비전들이 아닙니다. 이들 뒤에는 전쟁이 아니고 자유 부여나 평화적인 협상을 통하여 독립을 하게 된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궁핍한 사람들과 기근이나 한발 또는 자연 재해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기여 도움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화의 행위들입니다. 그들은 평화적인 의도의 약속이나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옛날 제안을 반복하거나 과거 행위에 대해 재언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희미하더

라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평화의 수단은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잘 탐구가 되지 않은 새로운 평화의 방법 -UN 총회에 의해서 제기된 방법- 이 있습니다.

UN 총회는 1953년 11월 18일 결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군축위원회는 관련 주요 강대국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이 소위원회가 비공개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954년 9월 1일 이전에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

미국은 상기 UN 총회의 제안에 유의하여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의 생명을 짓누르고 있는 원자탄 군축 경쟁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하여 주요 관련 국가들과 비공개적으로 즉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비공개 또는 외교적인 회담에서 새로운 구상을 내놓아야 합니다. 미국은 군사 목적용 핵물질의 단순한 감소나 제거보다 더 이상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 무기를 군인들의 손에서 빼앗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무기는 원자력의 군사적 케이스를 벗겨서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의 손

에 놓여져야 합니다.

만일 가공스러운 원자력의 군사적 증강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면 이 거대한 파괴력은 모든 인류를 위한 커다란 은혜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력으로부터 나오는 평화적인 힘이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이미 입증되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전 세계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적당량의 핵분열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을 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펼쳐 보여 준다면 원자력이 다방면에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용도로 쉽게 변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원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과 동서 국가들의 마음으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는 지금 당장 택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이에 따라 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원자력에 관련된 국가들은 초보적인 분별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재고로부터 천연 우라늄과 핵분열 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

하고 앞으로도 기부를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관이 UN 후원하에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의 비율, 절차, 그리고 기타 상세한 사항들은 내가 이미 거론한 '비공개 토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들 탐구를 선의로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선의로 행동하는 미국의 파트너는 모두 미국이 사리 있고 편견 없는 동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계획의 처음 및 초기에는 기부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찰 및 통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초조와 상호 의심이 흔히 발생하지만 이 제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초조나 서로 간에 의심을 유발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기부 받은 핵분열 및 기타 물질의 저장과 보호 책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창의력 많은 우리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핵분열 물질 은행의 기습 탈취 방지를 위하여 특수 안전 장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보다 중요한 책임은 이 핵분열 물질들이 인류의 평화적 추구에 사용되도록 배당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을 농업·의학 및 다른 평

화적 활동에 응용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원자력을 응용하는 특수한 목적 중 하나는 전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력이 제공하는 능력들은 원자력의 힘을 인간의 공포보다는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헌납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관련 국가들과 함께 이 계획의 개발에 착수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 관련 국가에는 소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는 미국 의회에 아래와 같은 계획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있는데 제출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핵분열 물질의 가장 효과적인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를 고취하고 그들이 실험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계획.

둘째, 세계의 비축된 핵물질의 잠재적 파괴력 축소를 시작하는 계획.

셋째, 모든 나라의 민족들에게 동서 강대국들이 군축 증강보다는 인류의 소망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획.

넷째, 평화적 대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그리고 만일 세계가

공포에 의해 야기된 무기력증을 떨쳐 버리고 평화를 향하여 긍정적인 전진을 하고자 한다면 공개 및 비공개 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난제들에 대해 접근을 시작하는 계획.

원자탄의 어두운 배경 앞에서 미국은 힘을 보이는 것을 원치도 않지만 평화에 대한 열망과 희망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은 중대한 결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총회에서, 세계의 수도와 군 사령관실에서, 지배자 또는 피지배자에 관계없이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 결정들이 이 세계를 공포로부터 평화로 인도하는 결정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들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데 맞추어, 미국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세계 앞에, 무서운 원자력 딜레마의 해결을 돕겠다는 결심,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적과 같은 발명이 인간의 죽음을 위하여 바쳐어지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 헌정되도록 하는 길을 찾는 데 미국의 혼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나는 대표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초청해 주었고, 그리고 저의 연설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